‘학폭’땐 선수 꿈 원천봉쇄

정부 ‘폭력근절·스포츠 인권보호 개선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퇴출부터 출장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선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뒤 일정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를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체육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와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개선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이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게인브리지 LPGA’ 오늘 개막…세계랭킹 1·2위가 특별히 설레는 이유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왼쪽)과 2위 김세영(28)이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인 게인브리지 LPGA에 출전한다. 두 선수에게는 올해 첫 대회로 고진영은 상금왕 3연패를, 김세영은 세계랭킹 1위를 향한 시동을 건다. 미 플로리다주(벨에어) | AP뉴시스

고진영·김세영 “소렌스탐과 경기, 떨린다”

한국 첫 상금왕 3연패 도전 고진영
“스윙 변화…경기력 어떨지 궁금”
고진영 넘고 1위를 꿈꾸는 김세영
“요가로 코어 강화…올해 3승 목표”

여자골프 세계랭킹 1, 2위 고진영(26)과 김세영(28)이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게인브리지 LPGA(총상금 200만 달러·22억 2440만 원)에 출전한다. 2021시즌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로 두 선수에게는 올해 첫 대회다.

지난해 12월 2020시즌 최종전으로 열린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제패해 LPGA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상금왕에 등극한 고진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상금왕 3연패의 발판을 놓겠다는 각오다. 고진영이 올해 상금왕에 오르면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투어에서 상금왕을 세 번 차지하는 선수가 된다. 기존에는 박인비(33)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상금왕에 오른 바 있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진영은 “비시즌에 스윙에 약간 변화를 줬다”며 “코스에서 어떻게 경기력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올 시즌 목표에 대해 “목표를 개인적으로 설정해두기는 했지만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다. 시즌이 끝나고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세영 역시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오른 여세를 몰아 고진영을 넘어 세계 랭킹 1위를 넘볼 태세다. 김세영은 “비시즌에 골프 클럽은 잡지 않고 필라테스 요가를 하면서 코어 근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3승이 목표다. 즐겁게 시즌을 보내고 싶은데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선수 외에도 이정은6(25), 박성현(28), 전인지(27) 등이 출격해 올해 LPGA 투어 한국 선수 첫 승의 주인공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왕년의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51)이 2008년 은퇴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선수 자격으로 깜짝 출전해 눈길을 끈다. 현역 시절 메이저 10승 포함 72승을 거둔 ‘전설’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관심이다. 고진영은 “소렌스탐과 경기를 해본 적은 없고 시상식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대회장에서 만나니 새롭고 신기하다”며 “소렌스탐과 함께 경기를 펼치고 싶다.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세영은 “어렸을 때부터 TV로 보고 LPGA에 와서 가끔씩 볼 수 있었던 레전드 선수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설렌다”며 “함께 경기하면 떨려서 집중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창호

‘바둑의 전설’ 이창호, 통산 1800승…스승 조훈현 이어 두번째

‘세계 바둑계의 전설’ 이창호 9단이 생애 통산 1800승을 달성했다. 이9단은 23일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기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1차 우슬예선 2회전에서 한웅규 7단에게 승리해 스승 조훈현 9단에 이어 국내 프로기사 중 두 번째로 1800승 고지에 올랐다.

이9단의 1800승 기록은 1986년 8월 제62회 승단대회에서 조영숙 초단(당시)을 상대로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둔 지 34년 6개월 만이다. 2002년 2월 1000승, 2010년 1월 1500승의 벽을 넘은 이9단은 2015년 9월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하며 1700승을 달성한 지 5년 5개월 만에 100승을 추가했다.

이9단의 1800승 안에는 메이저 세계대회 17회 우승을 비롯해 통산 140회의 우승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다승랭킹 1위는 1955승을 올린 조훈현 9단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창호 9단 1800승, 서봉수 9단 1712승, 이세돌 9단(은퇴) 1324승, 유창혁 9단이 1303승을 기록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1~10부) 시청 후 문의 바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 / 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아!
썩을 때로 썩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왈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품앗이계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 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완 010-4741-7008
조현교 010-7374-4111 / 서채윤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용한 010-3742-5998 / 선달민 010-2391-8259 ● **대구** 선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 요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 1888 ● **이천** 허진석 010-4707-2659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만드리아 010-3435-0158 / 박우양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명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